

# ‘클럽+조인’ 젊은이들 노는 문화가 있다

### ■ 광주 20대들 왜 구도심에 몰리는가

#### 값 싸고 합석 쉬워... “또래끼리 분위기 통해요”

‘구시청사거리’가 젊은층에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끼리 문화’가 통용된다는 점이다. 트렌드에 강하고 소비적인 20대들의 특성을 잘 간파한 젊은 업주들은 이곳에 ‘젊어 가능한’ 분위기를 제공했다. ‘클럽’(Club)과 ‘조인’(Join) 문화가 대표적이다. 이런 맞춤형 놀거리는 젊은이들을 구시청사거리로 흡수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클럽(Club)은 ‘나이트클럽’과 20대가 말하는 ‘클럽’은 뜻부터 다르다. 서울의 홍대거리와 강남주변의 클럽 문화를 그대로 이식한듯한 구시청사거리 클럽들은 1만원 내외의 입장료를 내고 춤을 추고, 자연스레 ‘탄남’이 가능한 곳이다. 속칭 ‘부비부비’(남녀끼리 몸을 맞대며 춤추는 것)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룸소주방 등 다른 술집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노는 방식이다. 클럽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옛 그랜드호텔 위치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 지하에도 최신식 클럽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Join)은 구시청사거리에서는 ‘부킹’ 대신 ‘조인’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함께 놀 것을 제안하

고, 쉽게 합석한다. 일반적인 술집에서는 ‘실례’인 행동이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나 그 분위기를 알고, 즐기기 위해 찾는다. 수 곳의 주점들은 ‘조인’을 권장하기도 한다.

대학생 김모(여·22)씨는 “대학교 주변에도 젊은층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이곳처럼 터놓고 잘 모르는 이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여기에서는 어떤 업소를 가도 우리 또래들이라 분위기가 통한다”고 말했다.

◇트렌드(Trend)=총장로 1가쪽 ‘바’(Bar)만 가도 10만원이 넘는 보드카(Vodka)가 길 건너 구시청사거리의 클럽과 라운지에서는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삼겹살, 갈매기살 등 인기메뉴도 일반 식당의 반값에 불과한 업소가 즐비하다.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좋지만 다소 가격이 비싼 ‘이자까야’도 있다. 테이블이 2~3개 밖에 없는 파스타 전문점이고, 그 사이에 맞춤형복점과 프랜차이즈 술집이 끼여있다.

업주들은 젊은층의 취향에 맞게 경쟁적으로 장 전면을 통유리로 설치했다. 구시청사거리 인근 업소는 150곳에 불과하지만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대기자들 “자리 안 나오나?” 지난 1일 밤 광주시 동구 광산동의 한 술집. 빈 자리가 없어 왼쪽편에는 대기자들이 줄지어 앉아있다. 20대 취향에 특화된 구시청사거리의 업소들은 최근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매장들이 입소문을 타고 20대를 유혹한다.

김형년(70) 구시청도심지역발전협의회장은 “지난 2년새 젊은층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일부 가게는

월 매출이 2배 이상 늘 정도로 활황을 타고 있다. 최근에는 상무지구에 가게를 가진 업주들이 유턴하려고 임대문의를 하지만 자리가 없을 정도”라며 “비교적 젊은 업주들이 비

슷한 연령대의 소비욕구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이 주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여수세계박람회장에 K팝 전용공연장 세운다

### 2만명 수용 규모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 K팝 전용공연장 신축된다. 야간권 판매에 따라 오후 6시 입장하는 관람객이 많고, 국내외에 인기있는 K팝 스타를 통해 박람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4일 조직위는 “신규 관람수요 창출과 학생들의 관람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 크루즈 부두 인근에 K팝 가수 등을 위한 전용공연장을 신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전용공연장의 규모는 길이 250m, 폭 80m로 수용인원은 2만명이다. 지난달 말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 이달 중순에 완공해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50회 정도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박람회 해상무대 공연장에 폭주하는 관람객 분산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아직 정확한 공사비 산정은 하지 않았으나 10억대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캠핑장·민박 등 대체 숙박시설 인기

“숙박료 부담 줄여서 여수세계박람회 하루 더 관람하자.”

여수세계박람회 인근의 마을회관과 캠핑장 등 대체숙박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1만원 내외의 저렴한 숙박료로 관람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것이다.

4일 여수시는 “최근 여수 굴전캠핑장은 사용률이 60%에서 88%로 증가했고 봉황산 휴양림은 61%에서 88%, 지역 민박은 57%에서 70%로 각각 관람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람회 조직위도 홈페이지(www.expo2012.kr)를 통해 호

텔, 모텔, 펜션 등 기존 숙박시설 외에 마을회관, 캠핑장, 처치·텐플스테이, 휴양림 등 정보를 제공해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조직위는 대체숙박시설을 찾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수뿐 아니라 순천시, 광양시, 남해군, 곡성군, 구례군, 사천시, 진주시, 보성군, 하동군, 고흥군 등 박람회장에서 1시간 이내 위치한 10개 지역의 71개 시설에 1만5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동률기자 mtlim@

### 오늘의 여수엑스포

해상쇼 ‘꽃피는 바다’는 한국 전통 마당놀이를 기본으로 한 퍼포먼스다. 바다에 설치된 장대 위에서 넘어질 듯 흔들리는 아트서커스, 해상스턴트, 분수쇼 등이 결합된다. 여수의 오물이 설화와 신지게 설화를 모티브로 했으며, 바다와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 한다. 박람회 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70분간 진행된다.

- ◇해상쇼 ‘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 ◇국가의 날-케네엑스포홀·오전 10시
- ◇특별기획공연 ‘비틀개비’(천막극장·오전 10시 20분)
- ◇특별기획공연 ‘전통혼례 재현’(전통마당·오전 11시 30분)
- ◇수상공연페스티벌 ‘비트’(해상무대·오전 11시)
- ◇해양문화체험 해피아 ‘비디는 보물창고’(컨퍼런스홀·오후 2시)
- ◇수상공연페스티벌 ‘오션블라스트피퍼’(해상무대·오후 7시 30분)
- ◇특별기획공연 ‘점프’(천막극장·밤 8시)
- ◇DJ쇼(해상무대·밤 10시)

- ▲어제의 관람객 수 = 4만3507명(이하 4일 오후 6시 현재)
- ▲누적 관람객 수 = 113만1952명

## 빛의만평

- 김중두



코미디 정치 (?)

## 황금동에 100석 공연장·인디밴드 클럽

### 광주대 최덕식 교수 9월 개관

최근 구도심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간 중 한곳이 광주시 동구 황금동이다. 다양한 감각의 옷가게들과 맛집들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 가을에는 이곳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정식 공연장도 들어선다.

현재 총장로와 남남로 일원에는 금남공원 앞의 ‘공연 1번지’, 광주세무서 맞은편의 ‘예술극장 통’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공연장이 들어서는 건 처음이다.

광주대 음악학과 최덕식(사)빛소리오페라단 예술감독) 교수는 오는 9월 100석 공연장과 인디밴드를 비롯

한 음악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클럽을 동시 개관한다.

공연장이 들어서는 곳은 광주시 동구 황금동 매가박스 사거리 인근 5층 건물. 최교수는 오는 6월 말부터 현재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 4층을 1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추고 조명과 무대를 설치할 이 공간에서는 콘서트, 독창회 등 음악공연과 연극 등을 공연한다. 무대는 가변무대로 설치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교수는 우선 극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쇼케이스를 거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노래와 춤, 마술 등을 가미한 뮤제카(뮤지컬+오

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장기 공연한다. 다른 장르의 대관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에스니 카페 ‘꽃’이 영업중인 지하에는 밴드를 비롯한 다양한 뮤지션들이 공연할 수 있는 클럽이 들어선다. 흥대 앞 클럽 등을 벤치마킹한 공간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밴드들과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다양한 공연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공간이다.

최교수는 “술마시고 즐기는 분위기 공간이 마련됐으면 싶어 오랫동안 구상해 왔다”며 “극장을 잘 운영해 앞으로 이런 공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국민권익위원회



#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

### 모시는 글



〈창립추진위원장〉 박길무

부패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국가 최고위 인사들의 부패와 관련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패 문제가 계속 심화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점점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고주의, 청탁, 접대 및 전관예우 등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부패 문제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은 투명한 지역사회 건설과 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한 여러분의 의지와 힘을 함께 모으고자 ‘반부패 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부디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추진위원장 박길무

| 일 시 | 2012년 6월 26일 (화) 14:00~

| 장 소 | K.T (3층) 회의실(동구청 옆)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연합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 후 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일보사 · 호남일보사

매일방송(주)에버뉴스

| 사무실 |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36번지 (2층)

| 전 화 | (062)228-4747(대) FAX. (062)228-4748

